셰플러 + 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6 Spring Vol.44

Special Theme

고객을 향한 열정

In Schaeffler

page 14 **무모한 도전**
콜라 빨리 마시기 대회 현장

For Life

page 28 **사랑의 세레나데**
남이섬 숲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외치다

To Communicate

page 49 **따뜻한 시선**
봉사단의 손끝으로 잿빛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다

C o n t e n t s

14

24

40

32

세플러+원

2016 SPRING Vol.44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Cover Caption

안성물류센터 물류관리 이루다 대리, 이동기 사원

안성물류센터는 세플러코리아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명칭은 중부물류센터였으나,
지역별 물류센터의 위치를 파악하기 편하게
지역 명을 기준으로 안성물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봄호 〈세플러+원〉의 표지는
안성물류센터의 전경과 함께
이루다 대리와 이동기 사원이
표지를 꾸며 주었습니다.

발행일	2016년 4월 15일(통권 제44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박영곤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 · 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ver Story

04 일상 속의 세플러
세플러와 함께 복잡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

In Schaeffler

06 테마 노트
고객 중심은 언제나 옳다. 고객을 향한 열정

10 리더에게 묻다
산업기계영업 BD장 권오경 상무

12 제조업의 미래
제조업의 부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14 무모한 도전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vs 볼베어링 MU

18 다시 찾는 수학여행
서울사무소 산업기계 영업지원

22 라면 공작소
만약,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For Life

24 아빠 어디가
서울사무소 전략기획 김문겸 선임매니저

28 사랑의 세레나데
서울사무소 일반구매 문경태 대리

32 세플러 미식회
안산공장 공정기술 변충석 부장

36 행복 스케치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

38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

40 같이의 가치
'열린옷장'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42 Law school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To Communicate

44 긴급상황 119
작은 손길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45 생활 속 사소한 꿀팁
오늘은 내가 '라면 요리왕!'

46 새로운 시선

49 따뜻한 시선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벽화 그리기 봉사

52 Schaeffler FOCUS

55 Schaeffler NEWS

61 Schaeffler Hotline

셰플러와 함께 복잡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꿈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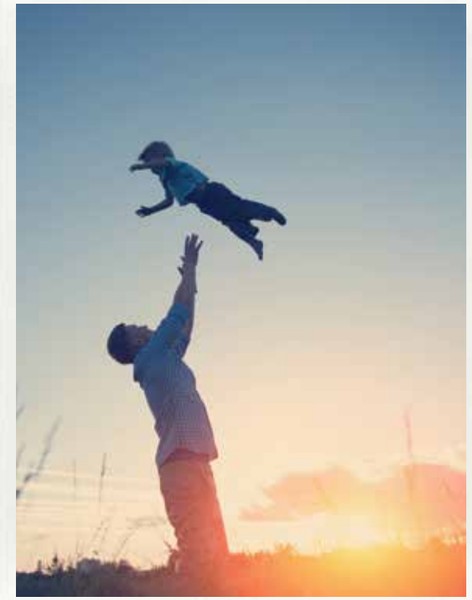
바쁜 하루를 달리다 고단함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움직일 생각을 않습니다.
'고장인가?'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목적지 층을 누르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혼자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버튼을 누릅니다.

그제야 마주한 유리창에 비친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며 찰나의 한숨을 돌려봅니다.
'아, 좋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일상 속에서 작은 쉼표를 찾은 듯,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꿈을 떠올려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신이 원하는 층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그대로 서 있을 뿐,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실현하고자 했던 꿈을 잊고
정신없이 업무에만 치여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헤매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품고 있던 꿈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틈에서 잠시나마 평온한 휴식을 느끼게 해주고
당신이 실현하고 싶었던 꿈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기술,
셰플러가 함께합니다.



엘리베이터 속에 숨어있는 셰플러의 기술, 밀봉형 스페리컬 롤러 베어링(Sealed Spherical Roller Bearing)

최근 엘리베이터 산업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간절약형 즉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Machine Room Less : MRL)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옥상에 마련된 별도의 기계실을 통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통제하던 방식과 비교하여 설치공간의 최소화, 운행효율의 최적화를 달성하고 주거지역 등에서의 건축법상 고도제한 규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및 설비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에도 효과적인 형태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구동장치에는 소형, 경량화와 고효율화 및 제어장치의 소형화에 적합한 밀봉형 스페리컬 롤러 베어링(Sealed Spherical Roller Bearing)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베어링은 오염에 노출된 환경에서 이물질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 **한근태** 소장(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고객 중심은 언제나 옳다

passion 고객을 향한 열정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상사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이 당신에게 월급을 준다. 뒤집어 생각하면 고객이 당신을 외면하면 당신은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관심을 두고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존 패터슨'

이를 위해서는 누가 고객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충성을 다하는 고객, 현재는 고객이지만 떠날 만반의 준비가 된 고객, 아직 고객이 아니지만 조금만 잘하면 고객이 될 사람, 아예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고객 등등…. 다음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한다. 1884년 NCR(National Cash Register) 이란 회사의 존 패터슨은 사상 최초로 금전등록기를 만들었다. 그는 이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도 갖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고객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작전을 바꿨다. 설명하지 않고 고객들의 고민을 듣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당시 상점 주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직원들이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제품을 금전 가로채기 방지용으로 설명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

고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패티 무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 패티 무어는 냉장고 신제품 콘셉트 회의 때 "관절염이 있거나 시력이 나쁜 사람 혹은 늙어서 힘이 약해진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시당한다. 패티는 노인의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시작했다. 약병을 열기도 어렵고, 전화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시내버스 타는 것조차 노인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그녀는 3년간 진행한 이 실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새롭게 개선하고 차별화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다. 이런 것이 진정으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도탄에 빠진 IBM을 구한
'루 거스너'

당신은 얼마나 고객을 사랑하는가? 대부분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거의 고객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고객을 사랑한다면 고객을 자주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한때 IBM은 매우 어려웠다. 도탄에 빠진 IBM을 구한 사람은 나비스코 출신의 루 거스너다. 그는 자신이 IBM 고객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IBM의 관료주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고객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물었다. 때문에 모든 직원은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IBM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루 거스너는 최고 임원 50명으로 하여금 3개월 안에 IBM의 가장 큰 고객을 각자 5명 이상 만나 고객의 고민과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IBM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객으로부터 들었다. 그 결과 대기업에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IBM은 살아난다. 고객을 만나 얘기를 들으면서 고객의 니즈를 알게 된 것이다.

고객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본
'스미스 앤 호켄'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고객과 비슷한 일을 해 봐야 한다. 원예 도구 생산업체인 스미스 앤 호켄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회사 주변에 정원을 만들어놓고 정원 가꾸기를 직접 경험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고객들처럼 되기 위해 땀과 시간을 투자했다. 문구업체 또한 비슷한 노력을 한다. 신학기 세일을 위해 핵심고객인 10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온종일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상을 체험한다. 그 결과 '파티 중', 혹은 '공부 중'이라는 문구에 불이 들어오는 아기자기한 문패와 가방 안쪽에 세탁 방법이 인쇄된 세탁가방을 출시했다. 또한 모든 주방용품을 하나로 묶은 키친인어박스란 세트도 내놓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얻은 결과이다.

NPS(Net Promoter Score)를 활용한
고객만족도 파악

고객 만족은 경영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고객은 만족했다고 하는데 그 고객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만족한 게 아니다. 만족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은 고객 만족 조사를 한다. 하지만 만족했다고 응답한 고객의 40% 만이 재구매를 했다. 만족은 했지만, 재구매를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만족은 "참을 만하다,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무언가 불만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E는 NPS(Net Promoter Score)란 고객 만족 파악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단순한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과 다르다.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우리 제품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는가를 0에서 10의 척도로 답하는 것이다. 9점 또는 10점이면 적극적(Promoter) 7, 8점은 소극적(Passive) 6점 이하면 부정적(Detractor)이다. 적극적(Promoter)이라고 답한 사람 숫자에서 부정적(Detractor)이라고 답한 사람 숫자를 뺀 점수가 바로 NPS이고 이 점수를 갖고 모든 부서와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정말 파워풀한 지표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객을 향한 사랑이란 무슨 말일까?
고객은 늘 나를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사랑이란 말은
사량(思量)에서 왔다.
생각의 양이란 말이다.
고객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객에 대해 늘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은 명쾌하다.
고객 사랑은 늘
고객 관점에서
고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5가지 키워드로 들어보는 사적인 이야기

산업기계영업 BD장 **권오경** 상무

셰플러코리아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사적이고 친근한 질문을 던져 리더와 사우 간의 거리를 좁히는 새 코너 '리더에게 묻다'. 첫 포문을 셰플러코리아에서 최고의 영업맨이라 불리는 산업기계영업 BD장 권오경 상무가 열어주었다. 다가가기 어려운 '상무' 권오경이 아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권오경이 되고 싶다는 그에 대해 알아보자.

#1 개구쟁이 권오경 어린이

Q. 상무님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A.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개구쟁이하면 모두 '권오경'을 떠올리듯이 유명한 장난꾸러기였어요. 워낙 호기심이 많아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기저기 잘도 돌아다녔었죠.

Q.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나 봐요?

A. 그렇지도 않아요. 놀기도 잘 놀았지만,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해서 늘 반장을 도맡아 했답니다.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웬만큼 잘하는 건강한 아이였답니다.

Q. 상무님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A. 어렸을 때는 구체적인 꿈보다는 막연하게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아이의 시선에서는 사업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선생님의 꿈도 꾼 적이 있죠.

#2 사람, 권오경의 취향

Q. 쉬는 날은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A. 산책를 좋아해요. 시간이 나면 산이든 들이든 공기가 좋은 곳을 찾아 무작정 걷는 것을 즐깁니다. 골프도 좋아하지만 아내가 가벼운 걷기를 좋아해서 주말이면 항상 산책을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Q. '이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A. 건장한 체격 덕에 겉모습만 보고 제가 고기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뜻밖에도 채소를 좋아한답니다. 싱싱한 채소가 곁들여진 음식이라면 다 좋습니다.

Q. 어떤 술을 좋아하시고, 얼마나 드시나요? 선호하시는 술과 주량이 궁금합니다.

A.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저 역시 술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젊었을 때는 정해진 주량이 없을 만큼 많이 마셔도 끄떡없었답니다.

Q.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것만 하면 말끔히 풀린다는 것이 있나요?

A.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풀어요.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3 권오경의 인생을 되돌아보다

Q.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A.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이 가장 소중히 느껴집니다. 아내와의 설렘 가득했던 신혼여행, 첫째 아이가 태어났던 감격스러운 순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프랑스로 가족 여행을 갔던 기억 등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행복했습니다.

Q.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A. 대학교 1학년 때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입사원 시절, 그 당시 저희 팀 부장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꼭 버텨내자'라는 오기로 이를 꽉 깨물고 버텨냈답니다.

Q. 2% 부족한 단점을 한 가지만 고백해주세요.

A.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때로는 독선적이고 강하게 말할 때가 많아 본의 아니게 후배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늘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ini Profile

생년월일
1962년 3월 10일

혈액형
O형

가족 관계는
어머니, 아내, 아들 둘

좌우명
최선을 다해라

#4 권오경의 셰플러코리아

Q. 셰플러코리아에서 나는 OOO다!

A. 저는 셰플러코리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영업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Q. 나를 표현할 때 탐나는 수식어가 있다면?

A.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권오경'을 떠올릴 때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 아직도 꿈을 꾸는 상무, 권오경

Q. 2016년, 이것만큼은 올해 꼭 해내겠다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A. 현재, 셰플러코리아뿐 아니라 동종업계가 모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세일즈 목표라도 크게 잡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2016년 목표입니다.

Q. 10년 후의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A.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즐기고 있겠죠. 어떻게 즐기느냐가 중요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며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소에 관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요리 같은 것을 배우며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길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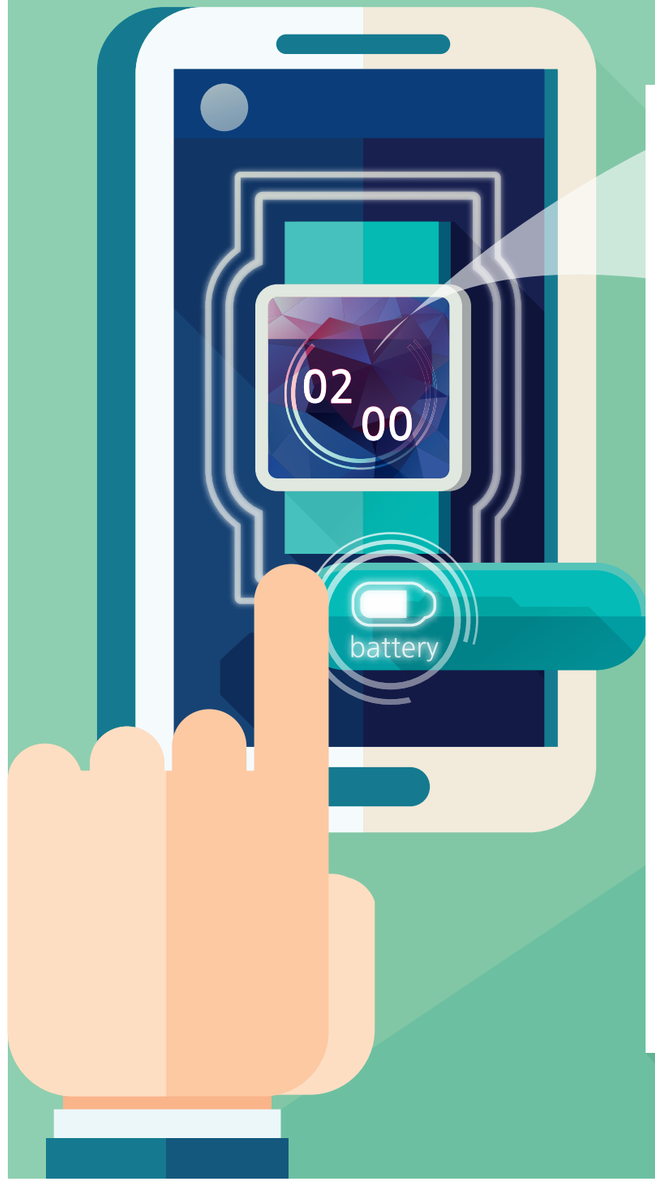
Q. 권오경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A. 은퇴 전까지 엄중하게 일을 해나가고,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의 현재 꿈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삶에 임하며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나갈 것입니다.

> 현재, 셰플러코리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사원들을 이끌어나가는 지도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제조업의 부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최소 비용, 최소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하는 스마트 팩토리. 현재, 전 세계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알아보자.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구축 본격화

미국은 첨단 제조 파트너십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빅데이터 등 신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도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가상, 현실통합시스템(CPS) 기반으로 전 제조공정 유연화 및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는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조업 혁신 3.0'의 핵심과제로 지속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활력 제고로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제조산업이 IT · SW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해 국내 제조 산업이 전통 제조업과 차별화된 첨단 제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소 협력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1,200개 스마트 공장에서 2017년에는 4,000개, 2020년에는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삼성과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노하우 전파 사업이다. 두 회사는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협력사 맞춤형 생산관리시스템 및 염가형 자동화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를 전국 산단에 파견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비결을 전수하고 있다.

IT업계,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눈독

개별적인 시스템과 솔루션 도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실행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분석 능력과 플랫폼, 사물인터넷(IoT)을 위한 다양한 ICT 기술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통합(SI)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IT업체들의 영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 IT업체들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은 생산 공정 효율화의 요구가 높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도 뚜렷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적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제약 사항이 적다는 점도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이 중요하게 꼽히는 이유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제조업 혁신 사업인 '산업의 미래(Future of the industry)'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다쏘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례로 삼기 위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형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대형 제조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또 다른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는 제조현장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현장을 모터니링한다.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자동으로 제어하는 환경을 포스코ICT와 함께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 적용해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포스코ICT는 이 과정에 적용된 무인 크레인, 물류관리 등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중국 허베이강철그룹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허베이강철그룹은 산하 탕산강철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계열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시아나IDT도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기 위해 공장 생산설비 시스템과 RFID시스템을 하나의 미들웨어 플랫폼에서 구현한 공장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하는 등 스마트 팩토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IDT와 금호타이어는 2012년 타이어용 RFID 특수태그를 공동 개발, 국내 생산되는 금호타이어 전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력 추적, 입 · 출고 정보, 재고 관리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효율화했으며, 이를 국내 공장 반제품 공정과 중국 천진공장에도 적용한 바 있다.

●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콜라빨리마시기 대회현장으로 출발!

벚꽃도 활짝~~웃음도 활짝~

무모해 보이지만 절대 무모하지 않다! 기상천외하고도 궁금했던 도전을 해보는 코너 〈무모한 도전〉. 어릴 적 상상으로, TV에서만 접했던 도전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무모한 도전〉에 첫발을 내민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와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벚꽃이 활짝 핀 벚꽃 나무 밑에서 경쟁의 불꽃을 튀며 엉뚱하고 재밌는 대결을 펼쳤던 그 순간을 찾아가 보자.

왼쪽부터)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이창민 사원,
문성주 사원
박영식 부장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이은상 사원
한재호 사원
김성헌 차장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VS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1

테이퍼베어링 MU 문성주 사원
볼베어링 MU 이은상 사원

까~
두근두근
첫 승리는 우리의 것!

#2

테이퍼베어링 MU 박영식 부장
볼베어링 MU 김성헌 차장

콜라 잔을 꽉 쥐고
준비 시~작

#3

테이퍼베어링 MU 이창민 사원
볼베어링 MU 한재호 사원

긴장되는 마지막 대결!
의욕이 앞서다보니
콜라가 주루룩~

내 팀인 듯, 내 팀 아닌 우리 팀

살갗을 간질이는 봄바람에 나른해진 오후, 따뜻한 기온 덕에 벚꽃이 일찍 만개한 창원공장 사내 공원에서 부서 간 '콜라 빨리 마시기 대결'을 위해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와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사우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두 팀은 설비보전 창원에 조직되어 MU에 따라 구분되지만, 업무적으로는 장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 등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회사 안에선 조직을 위해 각종 기술교류와 설비보전 정보공유 · 협업을 하며 효율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회사 밖에선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업무나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콜라 빨리 마시기 대결에 앞서 각 팀원은 대결에 나설 대표 3명을 뽑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던 처음 모습과는 달리 회의를 거쳐 진중하게 대표를 뽑았고, 그렇게 선발된 총 6명의 대표 사우들은 테이블 위에 준비된 콜라 캔을 보고 "콜라를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린다"며 허허 웃음을 지었다. 긴장과 설렘을 안고 대결을 준비한 사우들. 평소에 돈독하기로 유명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숨을 참고 한 번에 다 마셔버리자." 볼베어링 MU 김성헌 차장은 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돋웠다. 테이퍼베어링 MU 박영식 부장은 "어느 팀이 이기든 즐기자"며 경쟁에 앞서 두 팀을 독려했다.

불꽃 튀었던 콜라 마시기 대결

경기는 일대일 대결로 먼저 2승을 차지한 팀이 우승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대결로 테이퍼베어링 MU 문성주 사원과 볼베어링 MU 이은상 사원이 나섰다. 둘은 어깨를 맞대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대결을 시작하자마자 고도의 집중력으로 잔을 비워 머리 위로 올린 볼베어링 MU 이은상 사원이 1승을 가져갔다. "처음이라 긴장했나 봐요." 문성주 사원은 순식간의 끝난 패배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두 번째 선수로 나선 테이퍼베어링 MU 박영식 부장과 볼베어링 MU 김성헌 차장. 두 사람은 긴장감이 가득한 얼굴로 대결의 시작을 알리기도 전에 콜라 잔에 입을 대어 조금

이라도 빨리 마시려고 시도했고, 웃음이 가득했던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게 흘러갔다. "부장님만 믿습니다." 1승을 놓친 테이퍼베어링 MU 사우들은 박영식 부장의 어깨를 주무르며 응원했다. 대결 시작 후, 박영식 부장은 눈을 질끈 감고 콜라를 거침없이 벌컥벌컥 들이켰고, 간발의 차로 1승을 가져갔다. 박영식 부장이 잔을 비운 순간, 테이퍼베어링 MU 사우들은 "부장님, 최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볼베어링 MU 사우들은 간발의 차로 놓친 우승을 안타까워했다.

스코어 1:1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로 테이퍼베어링 MU 이창민 사원과 볼베어링 MU 한재호 사원이 굳건한 얼굴로 테이블 앞에 섰다. 둘은 콜라 잔을 맞대고 서로 이길 수 있다며 우쭐댔고, 승패가 갈리는 마지막 대결이라 마음을 졸이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대결을 시작하자마자 두 사람은 콜라 잔까지 먹어치울 기세로 기운차게 콜라를 들이켰다. 막상막하로 진행되다가 한재호 사원이 마음이 너무 앞섰는지 콜라를 흘리기 시작했고, 그 틈에 이창민 사원은 잔을 깨끗이 비우고 잔을 머리 위로 털었다. 테이퍼베어링 MU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손뼉을 짝짝 맞추며 폴짝폴짝 뛰었고, 볼베어링 MU는 "괜찮다"며 서로를 위로했다. 잠시 잊었던 도전정신에 불을 지핀 두 팀의 사우들. 도전은 끝났지만, 이들의 모습은 더욱 기운차 보였다.

잠시 잊었던
도전정신에
불을 지핀
두 팀의 사우들.
도전은 끝났지만,
이들의 모습은
더욱
기운차 보였다.

시작은 무모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셰플러코리아 배 콜라 빨리 먹기 대회 우승은 테이퍼베어링 MU에게 돌아갔고, 두 팀원의 입가에는 열심히 대결하느라 흘린 지 몰랐던 콜라의 검은 자국과 함께 미소가 가득 묻어 있었다.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사우들은 볼베어링 MU의 아쉬운 패배를 달래기 위해 번외 대결로 '재기 많이 차기'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이창민 사원의 돋보이는 재치와 강력한 기세로 테이퍼베어링 MU를 승리로 이끌었다. 재치 차기 역시 승리를 놓쳐버린 볼베어링 MU 사우들은 승패를 떠나 많이 웃고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후회 없이 기량을 뽐낸 대결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테이퍼베어링 MU와 볼베어링 MU는 함께 도우며 설비보전 창원의 주요성과지표를 200%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무결점(Zero Defect)공장의 실현으로 셰플러그룹 내 전 세계 공장에서 최고의 설비보전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두 팀의
팀워크를 약속하며
기쁨의 잔을
들어 올리다

번외경기 한 판~

아쉬운 패배를 달래기 위한 제기 차기 게임의 승리도 테이퍼베어링 MU에게 돌아갔다.

+ mini interview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이강업 부장

〈무모한 도전〉이라는 새롭게 소개되는 코너를 통해 설비보전팀을 소개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희 대결을 보시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한 두 팀은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은 경쟁인지라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미션에 임하였고, 두 팀의 팀워크를 다짐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추억을 따라가는 여행 엠티의 성지, 대성리로 Go~

서울사무소 산업기계 영업지원

누구나 추억하고 있는 수학여행과
엠티(MT: Membership Training).
집 떠나 친구들과의 1박이 어찌나 설레던지….
침대 위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설렘을 감춰본 적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좋아하는 사람과의 동행이었다면
그 설렘은 배가 된다. 그런 추억 가득한
곳을 다시 찾아간다면 어떨까?

뒷줄 왼쪽부터) 이경훈 과장, 김민건 대리, 이상남 팀장, 임태홍 차장
앞줄 왼쪽부터) 정혜진 과장, 이화영 사원, 김정훈 대리

다시 찾는
수학여행
그땐 그랬지 ——

대학교 1학년 때, 첫 동아리 엠티에 가서 돌아오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강변에 내려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여자 동기들을 향한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답니다~ (임태홍 차장)

+ mini interview

임태홍 차장
산업기계 영업지원

대학교 졸업 이후엔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이번 코너를 참여하면서
가슴 한 구석에 잊고 살았던
추억을 다시금 꺼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대성리를 함께 갔었던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연락해 보려고요. 더불어 추억의
장소에서 사우들과 돈독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 기억 속의 대성리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한손 가득 짐을 안은 대학생 무리들이 떼지어 대성리 역을 걸어 나온다. 화창한 봄날의 3월, 새로운 신입생을 환영하며 학기 개강을 맞이하는 전국 곳곳의 대학생들이 엠티촌 중 하나인 대성리로 모여들곤 한다. 그 사이에서 낯선 풍경이 눈에 띈다. 서울사무소 산업기계 영업지원 사우들이 오늘 하루 만큼은 풋풋했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 추억여행을 즐기기 위해 모였다. "대학교 졸업한지도 벌써 10년은 더 됐죠. 대성리 역에 모인 대학생 친구들을 보니 풋풋하기도 하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하며 대학생 때의 기억들이 문득 스쳐지나 가네요." 각자 저마다 엠티의 추억을 고스란히 되새기며 그때를 떠올려 봤다. "오랜만에 대성리에 오니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기차역이 매우 아담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땐 서울역에서 무궁화호 타고 여기 왔었는데…. 이제는 지하철로 쉽게 올 수 있다니 그때의 낭만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김정훈 대리가 이전의 대성리 역 모습을 추억했다. 마치 그때로 되돌아간 듯, 사우들은 대성리 역 주변을 거닐며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 당시 인기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을 보며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졌었어요. 남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엠티가 설레기도 했고 기대에 부풀었었죠." 하지만 임태홍 차장은 남자가 많은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면서 현실을 깨달았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막내였던 동기들 끼리 온갖 잡동사니를 들고 먼 길을 걸었던 일, 동아리 첫 엠티에서 여학생 동기를 좋아하게 됐던 일, 선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장기자랑을 준비했던 일 등등 추억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배가 출출해졌다. "엠티에서 장보기가 빠질 수 없죠!" 김민건 대리가 역 근처에 있는 마트로 발걸음을 이끌었다.

서로를 정겹게 만드는 추억의 이야기

'저녁에 무얼 만들어 먹지?" 가장 고민스럽지만 또 가장 즐거운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음식재료와 간식들을 장바구니에 한 가득 담고 나면 왠지 모를 안도감마저 든다. 김민건 대리와 김정훈 대리가 양쪽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선 사우들의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다. "다 같이 장을 보니까 정말 엠티에 온 것 같아요. 학창시절 생각이 마구 떠오르네요." 이화영 사원이 장보기를 거들었다.

"
이번 엠티는 추억을 회상하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팀의 화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종종 이런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

십 여분 뒤 싱글벙글 양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사우들의 모습이 마치 대학교 신입생과도 같았다.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군데군데 수줍게 피어있는 개나리가 사우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다. 포근한 날씨 덕에 사우들은 더욱 들떠보였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할 동안, 이상남 팀장이 기타를 잡고 한 곡 뽑아낸다. 노래를 들은 사우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와 이상남 팀장 주위를 둘러섰다. "팀장님, 그게 언제 적 노래예요~" 오랜만에 기타를 잡아본다며 쑥스러워 하는 것도 잠시, 손이 기타 코드를 기억해 내는 듯했다. 사우들은 옛 노래 몇 곡을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겼다. 최신곡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옛 노래들은 서로를 더욱 정겹게 만들었다.

추억의 게임, 끈끈한 팀워크를 확인하다

서울사무소 산업기계 영업지원에서는 판매관리와 분석, 가격정책 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주로 유통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해 결과를 산출해 내기 때문에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한다고. 이러한 사우 간의 화합을 확인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오늘은 이경훈 과장이 일일 사회자가 되어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맡았다.

"지는 팀이 오늘 하루 설거지 담당입니다."

정혜진 과장과 이화영 사원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했다. 첫 번째 게임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수건돌리기. 모두 동그랗게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술래는 그 뒤를 돌면서 마음에 정해둔 사람 뒤에 수건을 내려놓는다. 몇 번 진행되고 나니 사우들도 그제야 신이 나는 듯 노랫소리가 커졌다. 김정훈 대리가 정혜진 과장 뒤에 수건을 몰래 내려놓는 순간. "딱 걸렸어!" 술래가 잡히면서 게임은 끝이 났다. "요샌 수건돌리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재밌었어요."

두 번째는 엠티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 족구. 팀별로 승리를 다짐하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비록 가벼운 게임일지라도 사뭇 진지한 표정의 사우들이었다. 이경훈 과장의 서브로 시작된 게임. 양 팀 모두 팽팽한 실력으로 서브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늘 위로 공을 뻥 차다가도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서로를 챙겼다. 결국 승패를 가릴 수 없는 무승부로 게임을 마무리했다.

"오늘 게임은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에 더욱 즐거웠어요. 이번 엠티는 추억을 회상하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팀의 화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종종 이런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속에 감쳐뒀던 사우 간의 이야기는 해가 저무는 줄 모르고 계속됐다. 산업기계 영업지원은 앞으로도 매출증대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우 간의 화합과 노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 또 다시 힘찬 구호를 외친다. 파이팅!

산업기계 영업지원
하늘 높이 JUMP!

딱 걸렸어!
내가 널 봤어.

내 공을 받아라,
슛!

만약,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슈퍼히어로가 될 수도,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라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봄으로써 짜릿한 느낌을
경험해보는 코너 〈라면 공작소〉. 첫 질문인 '만약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에 대하여 셰플러코리아
사우들의 재치 넘치는 답변을 살짝 엿본다.

For Life

움츠러들었던 계절이 지나가고
열정의 꽃 몽우리가 피어나는 봄입니다.

24 • 아빠 어디가
고소한 우유 내음이 가득한 봄 소풍
아빠와 함께 떠나요!

28 • 사랑의 세레나데
남이섬 숲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외치다

32 • 셰플러 미식회
마음 속 허기까지 채워주던 순댓국 한 그릇

36 • 행복 스케치
셰플러코리아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

38 •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

40 • 같이의 가치
'열린옷장'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42 • Law school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 글 편집실 사진 강권신 · 정소협조 모산목장

고소한 우유내음이 가득한 봄 소풍 아빠와 함께 떠나요!

서울사무소 전략기획 **김문겸** 선임매니저

꽃봉오리가 살며시 피어오르는 계절,
푸른 잔디와 동물들이 반기는 모산목장을 찾은
서울사무소 전략기획 김문겸 선임매니저 가족.
아빠와 떠난 목장에서는 어린 송아지들이
고개를 내밀며 가족을 반겼다.
음매하고 울려 퍼지는 모산목장, 그곳에서
김문겸 선임매니저 가족의 즐거운 봄 소풍을 따라가보자.

두근두근 목장 체험

입구에서부터 신이 난 기색이 가득한 첫째 가윤이와 둘째 서율이. 봄을 맞아 한결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나들이를 나온 김문겸 선임매니저 가족은 한껏 들떠있었다. 입구에서부터 반기는 동물들에 시선을 빼앗긴 둘째 서율이는 이번이 두 번째 목장 체험이었지만 직접 목장 동물들을 만나고, 치즈를 만들어 피자를 구울 기대로 가득 차있었다. "우리 빨리 들어가요!" 귀여운 토끼들과 힘차게 인사하고 목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서율이는 잔뜩 신이나 있었다.
반면 목장 체험이 처음이라는 첫째 가윤이는 목장의 냄새와 동물들이 신기한지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바빴다. 푸릇하게 잎사귀가 올라오는 덤불길을 걸으며 송아지 축사로 향한 가윤이는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여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건초를 먹을 수 있을만큼 커다랗게 자라지 못한 송아지들은 우리처럼 우유를 먹어요. 한 번 우유를 줘볼까요?" 목장 안내인의 말에 따라 커다란 젖병을 들고 송아지에게 먹이는 가윤이는 우유를 힘차게 빠는 송아지의 힘에 방긋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김문겸 선임매니저 가족은 생각보다 큰 송아지를 보며 깜작 놀라 했지만 커다란 눈망울을 보곤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다.

아빠가 함께 있어 무섭지 않아요!

송아지의 배를 두둑하게 불려주고는 찾아본 엄마 젖소. 바로 손이 닿는 높이에서 젖을

엄마 없이 나들이를 나오면
미처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빠! 우리 다음에
어디가?'하고 물어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주말에 나가지 않고는 못 배겨요!

짜는 체험시간을 가진 김문겸 선임매니저 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젖소 발굽이 서율이 머리만 해요!" 가까이에서 젖소를 본 것이 처음이라는 가윤이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가득했다. 소의 체온으로 따뜻한 우유를 직접 짜니 신기한 감촉에 손을 조몰락거리며 즐거워하는 가윤이에 비해 아직 9살인 서율이는 소가 무서운 듯 아빠 뒤에 숨기 바빴다. 하지만 목장 안내자와 아빠의 손을 함께 잡고 한 발 한 발 다가가 우유를 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소를 무서워하는데 목장체험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투정과도 같은 가윤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서율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송아지를 만지고, 커다란 엄마 젖소에게 먹이를 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차근차근 소에 적응하고 예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김문겸 선임매니저도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엄마소의 먹이로 줄 기다란 건초를 찾고자 건초더미를 뒤적이는 데 여념이 없었다.

따끈따끈한 피자만큼 따뜻한 추억

"나도 치즈 만져보고 싶어요." 목장에서 나오는 신선한 우유로 만드는 치즈 만들기 체험 시간에 서율이는 큰 목소리를 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도 치즈를 만져본다는 설렘에 장갑을 단단히 끼고 치즈를 녹이는 서율이. 그리고 옆에서 행여나 데이지는 않을까 눈을 떼지 않는 김문겸 선임매니저의

모습은 다정한 아빠 그 자체였다. "이제 크게 늘려볼까? 조금씩 천천히 해야 해." 부드럽게 변한 치즈를 찢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늘리는 김문겸 선임매니저 가족은 하나가 되어 뽀얀 치즈를 만들었다.
이어진 피자 만들기 체험 시간에는 말랑하게 굳은 치즈를 가위로 툭툭 잘라 피자 위에 오밀조밀 올리며 쉼 없이 이야기하는 김문겸 선임매니저 가족. "아빠 이건 무슨 피자에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새콤달콤한 토마토 치즈 피자가 구워지자 사이좋게 나눠 먹는 가족들은 봄볕만큼 포근한 시간을 보냈다.
"맞벌이를 하는지라 아이들과 주말마다 함께 하려고 노력해요. 여름이면 계곡과 바다를 가고, 다른 가족들과 캠핑을 가거나 체험을 하러 찾아다니기도 하죠. 그래도 두 딸과 함께 목장에 온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하는 나들이에 익숙했던 가윤이와 서율이는 인상 깊은 여행지를 꼽을 수 없을 만큼 김문겸 선임매니저와 자주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딸 덕에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소중한 딸 가윤이와 서율이. "다른 건 엄마 없이도 해줄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지만, 머리만큼은 아직도 잘못 묶겠더라고요. 오늘도 엄마 작품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아빠라며 쑥스러워하는 김문겸 선임매니저에게는 올해 아이들과 제주도 일주라는 작은 목표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꿈꾸는 김문겸 선임매니저의 바람을 응원한다.

+ Tip

모산목장

젖소와 송아지, 염소와 닭을 비롯한 목장의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모산목장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낙농체험장이다. 건조 및 우유 먹이기와 목장에서 만드는 신선한 우유로 아이스크림, 치즈, 피자 만들기 등이 가능하며 헤이리 예술마을과도 인접해 가족끼리 방문하기 좋다.

문의 : 010.7176.6480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축현2리) 347번지 모산목장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남이섬 숲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외치다

서울사무소
일반구매
문경태
대리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춘천 남이섬.
새순이 고개 드는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화려한 봄 길을 이루고,
초록 잎들이 하늘을 뒤덮는다.
올해 결혼을 앞둔
문경태 대리가
하늘 높이 솟은
남이섬의 푸릇한 나무들 아래서
예비 신부에게
다이아몬드와 함께 전한
로맨틱한 고백을 들어보자.

나무들이 만들어준 천국에서의 하루

문경태 대리와 여자친구 홍사라 씨는 가평 쪽에서 배를 타고 5분쯤 물길을 건너 남이섬에 들어갔다. '나무들이 만들어준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름다운 숲길이 섬 전체를 메우고 있었다. 초록의 기운이 가득 찬 남이섬에는 봄을 온몸으로 느끼러 온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수많은 사람 틈에 문경태 대리와 사라 씨는 서로를 놓칠세라 두 손을 꼭 잡고 남이섬을 거닐었다.

사라 씨는 약 일 년 전 경태 씨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순수한 모습에 참 진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경태 씨는 사라 씨를 처음 만난 순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로에 대한 굳은 확신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손을 더 꼭 붙잡았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엄해서 단둘이 여행을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일 년이라는 그리 짧지 않은 연애를 했지만, 서울을 벗어나 멀리 온 둘만의 첫 여행이라 굉장히 설레 했다. "몇 년 전에 친구들과 왔던 남이섬과 오늘 남자친구와 온 남이섬은 정말 다르게 느껴진다"며 사라 씨는 남자친구와 아름다운 남이섬에서 각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보였다.

손을 잡고 걷던 두 사람은 마냥 뒹굴고 싶은 푸른 잔디밭에 누워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해보기도 하고, 남이섬 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란색 커플 자전거를 빌려 남이섬의 멋진 풍경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듯 동화되어 갔다. 커플 자전거를 처음 타본 두 사람은 "같이 나눈 추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와보니 처음 해보는 것 투성이"라며 "결혼을 하면 더 많은 추억을 함께 쌓아가자"고 뒤에 탄 경태 씨가 사라 씨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반대가 끌리는 이유

두 사람은 자전거에 내려 청평호가 보이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물안개와 어우러진 섬의 풍경은 더 신비하게 다가왔다. 고즈넉한 강변 산책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서서히 옛 추억 속으로 빠져들

어 갔다.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 두 사람은 일 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시작했다. "소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나서 냉면까지 주문하는 화통한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문경태 대리는 내숭이 없는 사라 씨의 인상적이었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첫 만남의 설렘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라 씨는 부끄러움이 많고, 낯을 가리는 문경태 대리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 "제가 가진 좋은 면이 경태 씨에게 없었고, 경태 씨가 가진 좋은 면은 제게 없었어요." 사라 씨 역시 경태 씨가 자신과 반대인 모습에 마음이 이끌린 것이다.

"알아가다 보니 서로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반대여서 끌린 두 사람은 일 년여 시간 동안 점점 서로 닮아갔다. 운동이라는 좋아하는 취미가 비슷한 두 사람. 경태 씨는 운동이라면 종목 가릴 것 없이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유도를 좋아해 퇴근하고 꼭 체육관에 들러 연습을 하고 귀가를 한다. 사라 씨도 경태 씨 못지않게 운동을 좋아해 "경태 씨가 유도 연습을 하는 동안 수영과 헬스를 하며 각자 취미활동을 즐긴다"고 했다. "평일에는 서로 운동을 열심히 하느라 잘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주말에 만나면 더 반가워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연애를 하는 두 사람. 어느덧 비슷해진 겉모습과 성격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 "너무도 달랐기에, 반대여서 끌린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닮아있었다."

+ Tip. 남이섬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남이섬은 청평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놀이 · 숙박시설, 전시관, 공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메타세쿼이아 길을 비롯해 섬 전체를 메우고 있는 숲 산책로는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문의 : 031.580.8114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1
홈페이지 : www.namisum.com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 프러포즈

추억 속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은 강변과 이어진 메타세쿼이아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이섬의 상징 메타세쿼이아 길은 어느 가로수 길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하늘로 쭉쭉 뻗은 울창한 가로수 길에 서면 자연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과 함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이곳은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배용준과 최지우가 걸었던 로맨틱한 길로 아직도 전 세계 여행자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무채색 나무 사이로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도 낭만적이지만, 봄에도 그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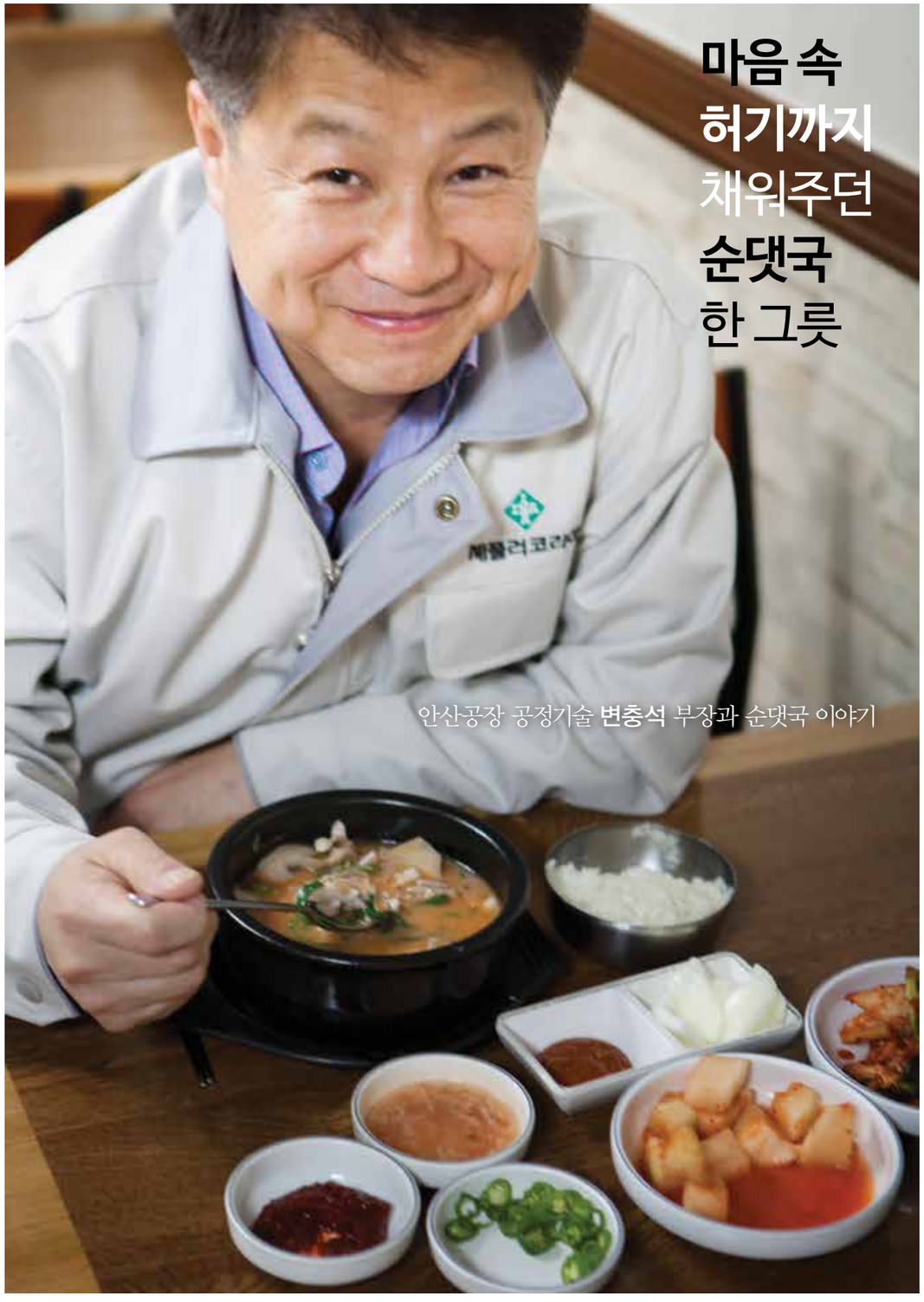
문경태 대리는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푸른 그늘을 이룬 길을 말없이 걷다가 사라 씨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너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어." 보석의 크기로 행복의 크기까지 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러포즈를 빛내주는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만한 것이 또 있을까. 경태 씨는 사라 씨에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순간이 되길 바라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를 주고 싶었다"며 비록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만한 마음을 표현했다. 사라 씨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다이아몬드의 크기만큼 환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문경태 대리는 사라 씨를 번쩍 업고 세상을 다 가진듯한 감정을 드러냈다. "엄마, 나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경태 씨 등에 업혀있던 사라 씨도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행복한 기분을 재치 있게 표현했다.

어느덧 청평호 수평선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고, 메타세쿼이아 속에서 바친 프러포즈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참여하길 정말 잘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셰플러인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에 사랑을 맹세한 두 사람이 언제까지고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길 희망한다.

>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을 줄이야! 엄마, 나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셰플러코리아 사우님들!
연인을 감동하게 할 프로포즈 이벤트를 펼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사우님들은 엽서 또는 LEESGY@schaeffler.com 메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글 · 사진 **김민규** · 촬영협조 **장터순대국** 031.317.8371



마음 속 허기까지 채워주던 순댓국 한 그릇

안산공장 공정기술 **변충석** 부장과 순댓국 이야기

먹방, 쿡방이 유행하고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시대에 음식은 먹거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을 소개하기에
여념이 없는 미디어는 그 음식을 만들고 먹는 사람의 가치를 잃은 듯하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음식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세플러인의 음식 이야기를 만나보자.

직장을 다니며 자연스레 만나게 된 순댓국집

남자가 어른이 되는 시기는 대부분 군대를 다녀와서부터다. 변충석 부장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군 제대 이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놨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서울이 집이었지만 변충석 부장이 처음 직장생활을 하게 된 곳은 안산, 지금 그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또 직장을 다니는 곳이다. 1985년, 사회초년생, 낯선 도시, 누구나 겪게 되는 두근거림을 가지고 있던 그의 미생(未生)시절. 직장 동료와 함께 찾았던 곳은 시장 초입에 있던 자그마한 순댓국집이었다. 그렇게 알게 된 순댓국집은 그리 자주 찾아가진 않았지만 야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는 식사 자리로, 직장 동료와 단출한 회식자리로, 때로는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한 아침 해장을 위한 자리로 그의 일상에 자리 잡았었다.

인생의 먼 길을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그 후 그는 참 열심히도 달려왔다. 지금은 세플러란 이름으로 한가족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세플러의 이름이 아니던 전주공장에 88년 봄에 입사했다. 그해 가을에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도 낳아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전주라는 낯선 지방에서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다. 다행히 스카우트 제의를 통해 본가와 그나마 가까운 지금의 안산공장으로 이직한 것이 벌써 22년 전 일이다. 그렇게 안산이라는 도시에 가족과 함께 자리 잡고 뿌리내리는 동안 청년은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 다시 찾은 안산에서의 직장생활은 여전히 사회초년생 시절과 같은 시간이 함께 했다. 자연스레 그 시절 자주 들렀던 시장 초입의 그 순댓국집을 찾았고, 선배와 오던 그곳을 직장 동료들과 오고, 또 조카뻘 후배들과 오게 되었다. 식당의 주인도 한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단골이라 하기에는 뜸하게 찾아오는 순댓국집에 특별한 사연이나 인연이 있을 리는 없다. 가끔 아내와 함께 찾아 왔을 때도 그저 순댓국 한 그릇 먹는다는 것 외에 특별함 같은 건 없었다. 단지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자리를 찾을 때면 으레 이곳에서 뜨끈한 순대와 수육을 한 아름씩 사다 갈 뿐이다. 그리고 내일이건 모레 건 또 다음 날이건, 순댓국 한 그릇이 생각날 때면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

> “안산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면서 이곳에 시장이 생겼고, 시장이 생길 때부터 여기 순댓국집이 있었죠. 순댓국이 그저 서민 음식이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지만, 이곳에 오면 부담도 없고 마음이 편합니다. 이곳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겠죠.”

장터순대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라성시장 내
031.317.8371

모처럼의
모임에서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친한 몇 명이
남아 삼삼오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을 때
마무리투수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댓국이다.

순댓국

[명사]
돼지를 삶은
국물에
순대를 넣고
끓인 국.

순댓국은 어른의 음식이다.

순대는 학교 앞 분식점에서 또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간식일 테지만 여기에 국이라는 접미사가 붙어 순댓국이 되고 보면 전혀 다른 음식으로 다가온다.
아마도 서른 즈음일 것이다. 스스로 순댓국 한 그릇의 뜨끈함이 그리워 순댓국집을 찾게 되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국물을 삼킬 때마다 '어으~' 소리를 절로 내며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어른의 입맛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생겨나게 된다.

순댓국은 마무리의 음식이다.

유난히 잔업, 야근, 해장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순댓국은 시작의 자리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바쁜 출근길에는 한 줄 김밥처럼 간단한 음식이 어울리듯이 늦은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주하기에 알맞은 음식이 바로 순댓국이다. 잔업이나 야근, 철야를 마치고 어중간히 늦어진 시간, 집에 돌아가 밥상을 차려 먹기 민망하거나, 길게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술은 거하게 마셨지만 안주가 부실했거나 속이 허할 때, 모처럼의 모임에서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친한 몇 명이 남아 삼삼오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을 때 마무리 투수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댓국이다.

순댓국의 미덕은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격식을 차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 돈까스정식을 먹기 위해 경양식 집에 갈 때 온 가족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던 흑백티비 같은 추억이 그것이다. 요즘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는 깃이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거나 반바지를 입으면 출입을 금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전국의 여느 순댓국집에서도 그러한 제한을 두는 곳은 없다. 허름한 운동복 차림도 좋고 흙이나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도 좋고 집에서 입던 옷에 겉옷 하나만 걸치고 와도 아무런 눈치를 볼 일이 없다. 오히려 쫙 빼입은 정장 차림이라면 느슨하게 넥타이를 풀고 윗단추 하나쯤 풀어두는 것이 어울린다.

순댓국은 시장의 음식이다.

시골 장터와 대형 마트의 중간 즈음 시장이 존재한다. 과거와 미래, 도시와 시골의 중간 그사이에 시장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산업화, 도시화 되던 시기에 많은 사람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그들과 함께 도시에 정착해 성장해왔다. 당연히 수많은 먹거리도 함께 자리를 잡았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오래도록 끓여내던 장터 국밥을 대신해 가스 불로 적절히 끓여내도 제맛이 나는 순댓국이 도시의 시장 속에 자리 잡았다. 물론 아바이순대, 백암순대, 병천순대처럼 우리나라 3대 순대로 불리며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곳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시장에 가면 어디라도 있음 직한 허름한 순댓국집이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순댓국집만큼은 백화점, 대형마트의 푸드코트나 고층빌딩 내 상가나 대형 체인점보다는 골목 귀퉁이에, 조금은 허름해 보이는 곳을 찾게 된다. 또 그런 곳에서 먹는 순댓국이 왠지 더 맛있다.

이런 순댓국이 귀한음식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

바로 선거철이다. 정치가라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코스처럼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평소에 오지 않던 곳에 온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순댓국 한 숟가락을 먹고선 아이돌 스타마냥 소위 인증샷을 남기고는 무대 위에서 퇴장한다. 하지만 그들만 모르고 모두가 안다. 순댓국은 그렇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순댓국은 푸근한 엄마의 집밥도 특별한 외식음식도 아니다.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은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쳐 마음도 속도 헛헛할 때 쓴 소주 한 병 올려놓으면 술상도 되고 밥상도 되는, 단돈 몇 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위로이자 행복이다.

가족의 행복을 그립니다

셰플러코리아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

셰플러코리아는 지난 3월, 임직원 자녀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기회를 주고 임직원 가족의 화목을 도려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 그림 콘테스트〉를 공모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30여명의 임직원 자녀가 참여했고, 그중 심사기준인 계절감·가족애·완성도·창의성에 적합한 6개 작품(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년 〈셰플러+원〉 봄호에는 최우수상 작품 외 아쉽게 수상을 놓쳤지만 봄이라는 계절감이 잘 드러난 7개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임직원 가족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벚꽃구경

창원공장 선삭 세그먼트 배종호 사원 자녀 '배현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과 함께 진해 벚꽃축제를
갔었던 기억이 소중하게 남아있어요.
벚꽃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예뻤답니다.

최우수상
창원공장 선삭 세그먼트 **배종호** 사원 자녀 '**배현준**'

우수상
전주물류센터 **이재선** 사원 자녀 '**이수원**'
전략기획 **김형덕** 부장 자녀 '**김태호**'

장려상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박영곤** 선임매니저 자녀 '**박지우**'
산업기계 남부 직납 영업 **박정인** 부장 자녀 '**박휘웅**'
산업기계 해외 영업 **이선종** 매니저 자녀 '**이현준**'

* 수상하신 임직원 가족 분들 축하합니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다음 호부터 순차적으로 소개됩니다.
시상은 빠른 시일 내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

수상작 외 작품

영취산 진달래

창원공장 설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U 최봉기 사원 자녀 '최종건'

영취산에 올라가면서 형과 진달래를 따서
꿀을 빨아먹었는데 달고 맛있었어요!

우리의 첫 파자마

서울사무소 HR서비스 이광렬 부장 자녀 '이수진'

친구들과 파자마로 갈아입고
생일 파티를 즐겼던 기억이 정말 좋았어요~

가족 소풍

전주공장 볼 세그먼트 서병빈 사원 자녀 '서민선'

가족들과 소풍을 가서
김밥을 먹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핑크색 풍경

서울사무소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 신수일 부장 자녀 '신현영'

봄이 오니 집 밖에 화단이 핑크색
풍경으로 꾸며져서 예뻤어요.

풍성한 나무

안산공장 급여 및 HR서비스 김경신 과장 자녀 '남승헌'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본 풍성한 나무가
기억에 남아요.

창원의 봄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이석호 책임연구원 자녀 '이영서'

창원은 벚꽃이 참 많아요.
해마다 아빠, 엄마와 주말에
벚꽃 구경 나들이를 한답니다.

남북 놀이동산

창원공장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임종철 사원 자녀 '임수아'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친구들과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싶어요.

● 글 · 사진 차영진(「유럽을 여행하는 정석 따윈 없다」 저자)

시인의 마을에 새날이 열리면

Stratford upon Avon

잉글랜드 중부의 작은 마을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은 셰익스피어가 나고 자란 곳이다. 작가와 관련된 볼거리도 다채롭지만 마을 자체도 대단히 아름답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기를 맞아 전 세계가 술렁인다.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을 여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밤새 고요히 웅크리고 있던 마을이 기지개를 켠다. 곧이어 마을은 어둠을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식료품점이 문을 열고, 주민들은 침실 커튼을 하나둘씩 열어젖힌다. 상점, 박물관, 교회도 사람을 맞이할 채비를 한다. 도미노처럼 주변으로 번져 가는 새날의 물결. 거대한 우산이 펼쳐지듯 삶이 사방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은근한 장관을 연출한다. 마을의 중심에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위대한 예술가 셰익스피어가 있다. 그가 중앙을 차지하고 앉아 마을 구석구석으로 숨결을 불어넣으면 마을은 그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시작한다.

가옥들은 꽃 화분을 내걸었다. 현관 외벽과 창문 아래에 매달린 화분 위에서 형형색색의 꽃들이 단아한 자태를 뽐낸다. 작은 골목 하나만도 꽃 화분을 내건 가옥이 여러 채다. 가옥 한켠에 매달린 화분들은 가옥과 어울려 그림이 된다. 길모퉁이마다 어김없이 산들거리는 꽃들. 생명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거리를 채운다. 마을을 거니노라면 울긋불긋한 꽃 화분 하나하나가 메타포가 되고, 그 메타포들이 모여 한 편의 시가 된다. 세계적인 대문호의 고향답다.

마을을 거니노라면
울긋불긋한 꽃 화분 하나하나가
메타포가 되고,
그 메타포들이 모여
한 편의 시가 된다.

마을 곳곳에는 중세풍의 가옥이 버티고 서 있다. 외벽에는 역시 꽃 화분이 매달렸다. 가옥의 보존 상태도 훌륭하거니와 유럽 본토와는 또 다른 건축 양식이 이채롭다. 여러 세기를 가로질러 눈앞에 나타난 오래된 가옥의 외면에서 역사를 읽는다. 한 중세 가옥 앞에는 최신식 세단이 주차돼 있다. 가옥과 세단 사이에 무명씨들의 욕망과 애환이 수 세기 분량으로 퇴적되어 있다. 갑자기 머릿속이 부산스러워진다.

셰익스피어의 생가에서 그의 부인 앤 해서웨이의 생가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낭만이 한창이다. 길가와 모퉁이에서, 학교 앞과 공원 뜨락에서 꽃은 여지없이 하늘거린다. 그러다가는 중세 가옥이 고풍스러운 자태로 등장해 현실 감각을 흐트러뜨린다. 아득한 풍경들을 거듭 지나치노라면 살아보지도 못한 셰익스피어 시대가 다 그리워진다. 극작가 생활을 위해 런던으로 상경한 성년의 셰익스피어도 향수병이 도질 때마다 복숭아꽃, 살구꽃을 되뇌며 '고향의 봄'을 노래했으려나.

마을 전체가 예술가를 중심으로 이토록 평화롭고 조화롭게 물결치는 곳은 유럽에서도 흔치 않았다. 이곳 출신의 누군가가 나타나 내 고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차마 반박할 수 없으리라. 시어를 매단 풍경들과 역사가 서린 중세 가옥들과 서정이 깃든 꽃들이 빚어내는 조화가 보기 드물게 아름다웠으므로, 더욱이 그게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으므로.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 촬영협조 열린옷장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옷장이 응원하는 청년의 꿈

'열린옷장'을 통해 본 공유경제 이야기

#01

직장인 A씨는 봄을 맞이해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했다.
옷장 정리를 하다 보니 낡아서 못 입는 옷도 아닌데
평소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이 옷장을 차지하고 있다.
버리자니 아깝고 보관하자니 옷장이 좁아 고민이다.

#02

취업준비생 B씨는 대기업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주에 면접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옷장을 살펴보고는 이내 고민에 빠진다.
면접 때 입고 갈 정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
새로 사 입자니 몇십만 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A씨와 B씨 모두의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착한 공유 프로젝트 사업인 '열린옷장'이다.

빌려 입는 옷에 대한 편견을 깨다

사실 사회에서는 빌린 옷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잘 맞지 않아 엉성한 옷을 보고 "남의 옷을 빌려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입던 옷을 교환하는 구제 시장도 활발하지 않다. '열린옷장'은 기증자의 사연을 더한 옷으로 중고에 대한 편견까지 말끔하게 세탁했다.

기증받은 옷으로 채워진 '열린옷장'에는 합격과 성공의 기운이 서린 옷으로 가득하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슈트부터 오랜 짝사랑과 결혼할 때 입었다는 정장 등 소중한 추억이 배인 옷들이다. 의류 수거함의 오프라인 버전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청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증한 옷들로 이건희 회장이 즐겨 입는다는 고가의 란스미어 정장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열린 옷장'에서는 모든 옷을 공유의 대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공유의 범위를 줄여서 생각해낸 아이템이 바로 면접용 정장이다. 청년구직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시작된 '열린옷장'은 취업 등에 성공한 대여자가 정장을 기증하고 있으며, 의류회사나 의상 전문가들이 협찬과 지원에 동참하면서 옷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창구가 되고 있다.

편안한 옷, 편리한 이용, 저렴한 가격으로

'열린옷장'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신청할 때 '나이, 목적, 선호 색상' 등을 적는다. 방문 날짜를 정하고 찾아가면 사이즈를 측정한 뒤에 전담 직원에게 목적과 선호 색상에 따른 슈트를 추천받는다. 공기업 면접에는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슈트를 권하고, 결혼식이나 행사 등에 참석할 때는 화려하게 변화를 준다. 피팅 뒤에는 대여자의 몸에 꼭 맞게 수선해준다. '열린옷장' 한만일 대표는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입는 사람에게 잘 맞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슈트에 대한 상식도 부족하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 슈트를 구매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첫 슈트가 장롱 속에서 잠자는 이유 중에 하나다. 미리 대여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핏을 파악하면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취준생 외에도 정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았다.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의 양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는 여학생부터 외국 대통령의 방한을 취재하려는 사진기자,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무명 배우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슈트를 원한다. 비영리 단체인 만큼 사용료도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올해 처음으로 수익이 났다.

택배비를 포함해 1만 8,000원 정도면 일주일을 빌려 입을 수 있다. 단돈 3만 원이면 2박 3일 동안 슈트부터 셔츠, 신발, 벨트 일체를 빌릴 수 있다. 보증금 한 푼 없이 말이다.

이용법도 간단하다.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방문해 대여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옷을 통해 마음을 공유하는 열린옷장

'열린옷장'은 착한 나눔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단순히 정장을 대여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증자와 대여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증자들은 대여자를 위한 응원편지를 작성한다. 그동안 모인 편지만 해도 수천 장에 이른다.

기증자 대부분은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사회생활에서 느낀 점을 전달한다.

이미 구직자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평균 70~8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경조사 참석 등 정장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열린옷장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유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용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
홈페이지 : www.theopencloset.net
주소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13 웅진빌딩 502호
운영시간 : 월~토요일, 10:00~18:00
(점심시간 13:00~14:00)
문의 : 070.4325.7521

● 글 서울사무소 법무팀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2016년 2월부터 안전을 위한
자동차 법규에도 변화가 생기고 통행료 인상,
대형차량의 보험료와 전기차 보조금 등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2016년 강화되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보복운전 처벌 강화

- 2회 이상 위반 시 난폭운전으로 인정
- **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난폭운전의 기준**
  신호 및 지시 위반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중앙선 침범 / 급제동 금지 위반 /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 금지 위반 /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 불필요한 소음 발생 / 안전거리 미확보

▶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 1차로에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
- **처벌 규정** : 벌점 10점,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 – 범칙금 4만 원, 대형차 – 범칙금 5만 원
- 자동차 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 **서울~부산 요금** : 18,800원 → 20,100원
- **서울~광주 요금** : 14,400원 → 15,300원
- **5개 민자고속도로** : 3.4% 인상

▶ 법인세 과세 기준 변경

-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 원까지 인정
- 연간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작성 시 세금공제

▶ 전기차 보조금 지원 5년 연장

- **수소연료전지·하이브리드 차량** : 2,750만 원 중 100만 원 지원(기존과 동일)
- **전기차** : 보조금 300만 원 하락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 보조금 500만 원 지원(신설)

▶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인하

- **국산차** : 194개 모델 중 53개의 보험료 인상, 42개 인하
- **수입차** :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 인상, 18개 인하
  (국산차 K3, 아베오, 트랙스, 리갈, 말리부, 뉴SM5, 뉴그랜저XG, 오피러스, 뉴체어맨, 쏘렌토, 카니발리무진, 카렌스 II · X-TREK, 올뉴카렌스, 올뉴쏘렌토, 렉스턴 II, 윈스톰, 올란도, 캡티바, 싼타페, 테라칸, 맥스크루즈 등 보험료 약 10% 인상 전망)

To Communicate

따스한 햇살 한 스푼, 그리고 열정 한 스푼
고객에게 전하는 달콤한 봄이 완성되었습니다.

44 • 긴급상황 119
작은 손길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45 • 생활 속 사소한 꿀팁
오늘은 내가 '라면왕'

46 • 새로운 시선
세플러코리아에 희망의 새싹이 쑥쑥~ 자라납니다

49 • 따뜻한 시선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벽화 그리기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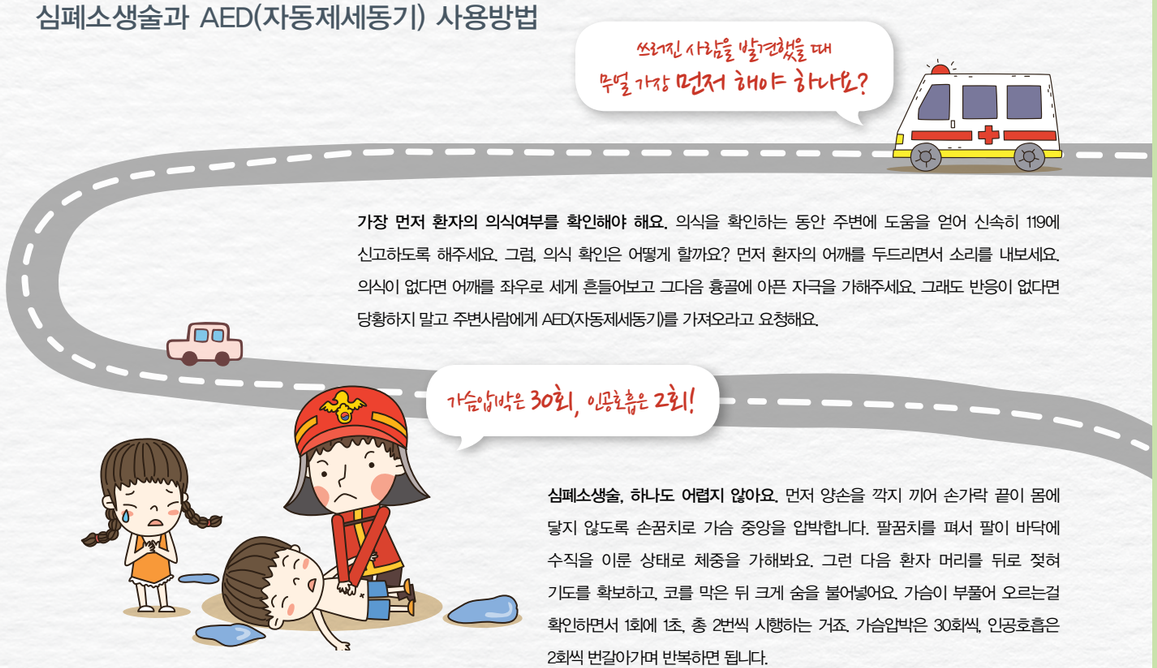
52 • Schaeffler FOCUS

55 • Schaeffler NEWS

61 • Schaeffler Hotline

작은 손길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과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가장 먼저 환자의 의식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의식을 확인하는 동안 주변에 도움을 얻어 신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의식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보세요. 의식이 없다면 어깨를 좌우로 세게 흔들어보고 그다음 흉골에 아픈 자극을 가해주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AED(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해요.

심폐소생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양손을 깍지 끼어 손가락 끝이 몸에 닿지 않도록 손꿈치로 가슴 중앙을 압박합니다.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로 체중을 가해봐요. 그런 다음 환자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은 뒤 크게 숨을 불어넣어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걸 확인하면서 1회에 1초, 총 2번씩 시행하는 거죠. 가슴압박은 30회씩, 인공호흡은 2회씩 번갈아가며 반복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AED장비가 올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돼요. 처치자에게 AED장비를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죠. AED에는 두 개의 전기패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환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선에 붙여줍니다. 참, 붙이기 전에 환자 몸의 땀이나 물기를 깨끗이 닦아주는 걸 잊지 마세요. AED를 작동할 때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야 해요. 그리고 AED기기의 분석 버튼을 눌러 심장 리듬을 분석한 뒤 필요한 경우 음성신호에 따라 쇼크 버튼을 꾹! 처치가 끝나고 바로 심폐소생술로 전환하고 이는 의료진이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AED장비는 어디에 구비돼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곳곳마다 AED장비가 설치돼 있어요. 관광지를 비롯해 지하철역,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눈여겨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만큼 AED는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효과가 있나요?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손상은 점점 심각해져 사망에 이르거나 살아나도 대부분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기도 해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최초 목격자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오늘은 내가 '라면 요리왕!'

세플러 가족을 위해 나만이 알고 있는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요리가 라면일지라도 난 평범하게 먹지 않는다',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어야지'라는 철학을 가지신 셰플러인이라면 나만의 요리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해주세요. 처음으로 〈생활 속 사소한 꿀팁〉에 소개되는 레시피의 주제는 국민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 한 끼 주식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면의 변신이 기대되지 않은가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한 라면, 벌써부터 입 안 가득 침이 고입니다. 그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라면은 국물 맛이 최고 여야지!

사골 뼈를 푹 우려낸 국물을 이용한 사골라면

최진경 사원 • 서울사무소 HR 평가 및 보상

recipe

❶ 물 대신, 사골 국물을 팔팔 끓인다.
❷ 라면스프는 3분의 2 정도만 넣어준다.
❸ 면과 함께 끓인 후 맛있게 먹는다.

제가 제안하는 레시피는 집에서 한번 끓이면 질리도록 먹는 사골 국을 활용한 레시피 입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물 대신 사골 국을 넣고 라면을 끓이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스프를 3분의 2정도만 넣어야 합니다. 스프를 다 넣고 끓이면 사골 국에 간이 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라면보다 너무 짜더라고요. 물 대신 사골 국을 넣고 스프를 3분의 2만 넣고 라면을 끓이면 기존 라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는(심지어 몸에도 좋은)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신라면 블랙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저만의 팁을 공유하자면 신라면 블랙이 맛있는데 비싸다면? 사리곰탕면과 신라면을 두 봉지 사서 두 개를 같이 끓이면 신라면 블랙이랑 비슷한 맛이 납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탱글탱글한 면발과 새콤한 맛의 조화, 비빔라면

정우진 대리 • 서울사무소_중부직납영업

recipe

❶ 라면 면발을 뜨거운 물에 4분 정도 끓인다.
❷ 면발이 익으면 얼음물에 넣다 뺐다를 5차례 정도 반복한 후 찬물에 헹군다.
❸ 초고추장 5스푼, 참기름 1스푼, 깨 작은 숟갈 한 스푼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❹ 김 가루와 삶은 달걀, 오이 등 고명을 올린다.

날씨가 더워지면 꼭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빔면. 저는 라면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비빔면을 만들어 먹곤 합니다. 비빔라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탱글탱글한 면입니다. 우선 팔팔 끓는 물에 라면 면발만 4분 정도 끓입니다. 면이 익으면 얼음물에 넣다 뺐다를 5차례 반복한 후 찬물로 면을 헹궈내야지만 면발이 탱글하게 살아나요. 양념장으론 초고추장 5스푼과 참기름 1스푼, 깨 작은 숟갈로 뿌려주고 비벼주면 끝! 취향에 따라 오이나 김 가루, 삶은 달걀을 고명으로 올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조금 맵게 먹고 싶으면 핫 소스를 곁들여도 좋아요~

셰플러코리아에 희망의 **새싹이 쑥쑥~ 자라납니다**

새싹이 쑥쑥 자라나듯 성장할 11명의 신입사원이 셰플러코리아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인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이 말하는 **'앞으로 나는 OOO한 셰플러인이 되겠다'**는 포부와 굳센 다짐의 메시지를 들어보자.

서울

김태형 _ SCM
인기 있는 셰플러인이 되겠다!
선배님, 동기, 후배들 등 모든 사람에게 직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사랑을 받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_ 사업관리
성장하는 셰플러인이 되겠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포부와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신입사원으로서 씩씩하게 잘 해내겠습니다.

최태영 _ 일반구매
부지런한 셰플러인이 되겠다!
일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나날이 회사와 부서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주윤선 _ 트랜스미션 시스템
넓은 시야를 가진 셰플러인이 되겠다!
한 발자국만 아닌 열 발자국을 내다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개척하겠습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옆을 두루 살피며 셰플러인의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창원

김성훈 _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밝은 신입사원이 되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사원으로서 언제나 밝게 웃고 인사하며 선배님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잘하는 셰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조영준 _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앞으로 인정받는 셰플러인이 되겠다!
셰플러코리아라는 큰 조직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셰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안산

박혜원 _ 엔진 콤포넌트 BU 영업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셰플러인이 되겠다!
세계적인 그룹 셰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셰플러코리아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김태원 _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끈기 있는 셰플러인이 되겠다!
힘든 일이든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든
끈기 있게 도전한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목표에 근접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끈기 있게
도전하겠습니다.

장재익 _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치열하게 사는 셰플러인 되겠다!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먼저 치열하게
살 각오부터 하라.' 전주 연수원에서 본
글귀입니다. 앞으로 회사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결과를 바라기보단
저 자신의 자세를 먼저 다잡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현환 _ 공정기술 전주
발전하는 셰플러인이 되겠다!
열정은 있지만 어리벙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게 되는
에이스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종혁 _ 휠베어링 세그먼트
후회하지 않는 셰플러인이 되겠다!
셰플러코리아의 아들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내어 절대 후회하지 않은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봉사단의 손끝으로 잿빛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다

셰플러코리아와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함께한
벽화봉사 현장

우리의 오감 중 심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시각이다.
주민들의 눈과 마음을
따스하게 적시기 위해 벗꽃이 만개하는 봄,
셰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서울 은평구 응암동 산골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단의 손길로 노후화된 도심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은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설렘을 안고 시작한 벽화 그리기 봉사

따스한 봄바람이 물씬 불어오던 지난 4월 2일 이른 아침, 셰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서울 은평구 응암동 산골마을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모였다. 올해로 4기를 맞은 EVERGREEN은 늘 푸른 나무라는 뜻의 '상록수'처럼 사회와 늘 푸르게 함께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벽화 그리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높은 언덕에 있는 골목길로 물감과 물통, 붓 등 봉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옮기고, 준비된 마스크와 장갑, 모자, 앞치마를 갖춰 입고 각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역할 분담을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 봉사가 처음이라는 한 봉사단원은 물감통을 하나둘 옮기며 "잘 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주민들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작 전 떨리는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봉사단원은 "화창한 날씨에 마을을 멋있게 가꿀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며 벽화 그리기 봉사에 참여하는 설렘 가득한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은평구 산골마을

은평구 산골마을은 서울 북한산과 백련산 자락인 응암1동 30번지 일대와 녹번동 71번지 일대에 있는 소규모 마을로 서울에서 보기 힘든, 생태공간과 주거공간이 잘 어우러진 풍광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산골마을의 '산골'이라는 이름은 '산골짝에 다람쥐'의 산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골절 치료에 사용하는 광물 약재인 '산골(山骨)'이 채취되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곳은 1960~1970년대 시행된 불량주택 철거 작업으로 갈 곳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 산비탈에 판잣집과 텐트 등을 짓고 살던 마을이다.
이 지역은 1972년 통일로 개발로 인해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43년간 단절된 마을을 2015년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으로 연결하였고, 2012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시작과 2013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마을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이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기반을 둔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선정된 마을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3단계로 지원을 받는다. 현재는 약 27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장기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이다. 단독주택과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비율이 88.8%로 상당수가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한다.

화사한 동네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산골마을

벽화 그리기는 은평구 산골마을 내 건물과 주택 외벽에 벽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은 물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는 '에너지 절약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색감의 벽화 그리기를 시행했다. 봉사단은 풍력발전기,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희망찬 소재로 밑그림을 그린 후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채색을 시작했다. 따뜻한 봄 햇살 덕에 벽화를 열심히 그려나가던 봉사단의 이마에 송골송골 구슬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그림에 집중한 봉사단은 힘든 내색도 없이 흐르는 땀이 혹시 그림에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며 조심스럽게 벽화를 완성해 나갔다. 스산함과 황량함이 느껴졌던 골목은 점점 봉사단의 손길로 인해 화사하고 정감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시멘트 담이 에너지 넘치는 벽화로 새 단장을 하자 주민들의 표정도 바뀌었다. 벽화에 관해 관심을 보이지 않던 주민들도 막상 이웃 담벼락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지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며 나서기 시작했고, "우리 동네가 미술관이 됐다"며 예쁜 벽화를 그려준 봉사단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화창한 날씨에
마을을 멋있게 가꿀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며
벽화 그리기 봉사에
참여하는 설렘 가득한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세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은 앞으로도 벽화 그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외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 mini interview

서울여자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김민선

이번에 처음으로 벽화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직접 색칠해봤는데 이 벽화를 보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웃음이
가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같이 고생해주신 봉사단 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Tip

은평구 산골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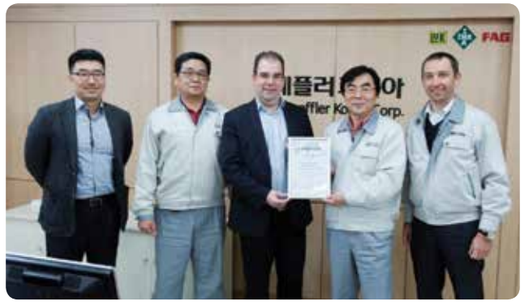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경계에 위치한
산골마을은 통일로를 가운데 두고
은평구 녹번동 71번지와 응암동 34번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총면적 13,396㎡인 작은 마을로
270세대, 5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위치

은평구 통일로 580(녹번동 71번지) 일대와
통일로 579(응암동 31번지) 일대

FOCUS 01

셰플러 그룹 내 선도 세그먼트로 선정된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인증서_수여

셰플러 그룹 내의 단조 공장은 슈바인푸르트(독일), 창원(한국), 키슈체(슬로바키아), 래넬리(영국), 체로(미국), 조플린(미국), 인추안(중국), 브라쇼프(루마니아)의 총 8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2월 24일, 창원공장의 단조 세그먼트는 그룹의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8곳에 있는 단조공장 중 선도(Lead) 세그먼트로 위촉되었다. 이번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의 성과는 그룹 내에서 셰플러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가 그룹의 단조 부문 선도 세그먼트로 선정된 데에는 그룹 내 타공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설비종합효율과 함께 짧은 준비교체 시간을 가진 점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창원공장의 설비종합효율은 71~75%의 성과를 발휘하는 반면에 그룹 내 타 공장의 경우에는 55~60% 수준으로 낮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준비교체 시간의 경우 창원공장이 단조 기종에 따라 30~60분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그룹 내 타 공장은 90~150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단조품의 제조 원가는 창원공장이 국내외 단조협력업체 및 그룹의 타 공장에 대비하여 15~50%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그룹의 단조 관련 기술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

선도 세그먼트로 지명된 창원공장의 단조 세그먼트는 현재 AMP20, AMP30, AMP50 및 HBP120의 총 4기의 단조기와 소둔로 3대, 전조기 28대를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2017년 상반기 내에 9백만 유로 상당의 새로운 AMP50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선도 세그먼트인 창원공장의 단조 세그먼트는 슈바인푸르트(단조 센터) 공장과 함께 셰플러 그룹 내 선도자로서 기술적인 분야 및 각종 개발과 개선 작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 공장은 AMP20, AMP30, AMP50 및 사카무라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 내 단조 세그먼트인 슈바이푸르트(독일), 브라쇼프(루마니아), 체로(미국), 래넬리(영국)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기술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선도 세그먼트의 업무는 각종 생산 및 품질 문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 기술 개선 및 개발, 신기술 적용, 국내를 포함해 중국 및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협력업체 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앞으로 선도 세그먼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룹 내 단조 공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창원 공장 단조 세그먼트의 미래가 기대된다.

FOCUS 02

2016 셰플러코리아 서플라이어 데이

〈우수 협력업체 시상〉
(왼쪽부터) 한제피앤에스 박재홍 대표, 벤엘정밀 유무상 대표, 세일단조 김수권 대표, 삼동허브 신병일 대표, SBC 김치균 대표

지난 2월 25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금호리조트에서 2015년 한 해를 함께 했던 공급업체들의 성과를 기념하고자 '2016년 셰플러코리아 서플라이어 데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 셰플러 아시아퍼시픽 구매 부사장인 Micah Shepard를 포함해 임직원 20여 명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2015년도 우수 협력업체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직접자재 부문에서 3개사, 일반구매 부문에서 2개사가 선발되어 총 5개 협력업체에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날 우수 협력업체로 수상한 5개 업체는 부상으로 중국 인촨(Yinchuan) 지역에 위치한 셰플러차이나 공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함께 경영 환경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가 보여준 노력에 감사하며, 2016년에도 서로 협력하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병찬 대표이사의 인사말이 끝나고, 품질혁신 활동 및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승철진 상무의 발표가 이어졌다. 오전 일정의 마지막으로 구매 실적, 정책 및 MOVE @ Supplier 정책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4가지 프로젝트(열관리 모듈, 토크 컨버터, 볼 스크류 및 RSEMR)의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협력사 대표와 창원공장 양승욱 공장장의 발표로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가 보여준 노력에 감사하며, 2016년에도 서로 협력하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FOCUS 03

셰플러그룹 CEO Claus Rosenfeld 타운 홀 미팅 화상중계

4월 12일, 아시아퍼시픽 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서 셰플러 그룹 CEO인 Claus Rosenfeld가 진행하는 타운 홀 미팅이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그룹 CEO와 지역별 임직원이 소통할 기회의 목적으로 준비된 이번 타운 홀 미팅은 Claus Rosenfeld의 싱가폴 방문 일정 간에 아시아퍼시픽 싱가폴 오피스에서 송출되어 같은 시간대 아시아퍼시픽 지역 내에 미리 설치한 화상 장비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서울사무소 및 창원, 안산, 전주, 연구소의 사무직 임직원들은 준비된 장소에 모여 Claus Rosenfeld의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했다. Claus Rosenfeld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국가별 사업장에서 사전에 받아 정리한 질문에 대한 질의 · 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FOCUS 04

IMP(International Management Program) 개최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창원에서 IMP가 개최되었다. IMP(International Management Training)는 그룹 내 다양한 영역의 매니지먼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리더십 함양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셰플러 그룹에서 글로벌 및 리전의 중책을 맡고 있는 Top management로 이번 차수에서는 교육생 16명과 강사 2명 그리고 셰플러 아카데미에서 파견된 프로그램 매니저 1명이 참석해 총 19명이 참가했다.

본 교육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로컬 챌린지 세션에서는 공훈 상무의 지도 아래 현재 코리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스터디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도 높은 비즈니스 스터디를 통해, 코리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후기를 교육생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이어진 로컬 매니지먼트와의 대화 세션에서는 다수의 코리아 매니지먼트들이 참석해 교육생들과 함께 토의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창원 공장 투어를 통해 현장을 둘러보며 살아 있는 교육도 경험할 수 있었다. 코리아의 공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각 라인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교육생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일정 말미에는 교육생들 모두가 국가, 영역, 직급에 상관없이 셰플러라는 이름 아래 하나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IMP를 통해 셰플러의 미래를 선도할 재원들이 원 셰플러(One Schaeffler)에 한 발 더 가까워졌기를 기대한다.

서 . 울 . 사 . 무 . 소

사보 리뉴얼 워크숍

● 2월 22일, 전주 연수원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사보 리뉴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각 사업장의 사보 주재기자들은 기존 사보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2016년도 사보 리뉴얼 계획을 수립했다.

축구동호회 1/4분기 모임

● 2월 18일, 서울사무소 인근의 야외 풋살장에서 동호회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 인근의 풋살장에서 10명의 동호회원이 참석하여 경기를 즐기고,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다.

스키동호회 모임

● 2월 20일, 서울사무소 스키동호회의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아침 일찍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 모인 동호회원들은 추운 날씨도 잊고 함께 동호회 활동을 즐겼고, 함께 저녁 식사 후에 해산했다.

e-스포츠동호회 모임

● 3월 15일, 서울사무소 e-스포츠동호회의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 근처의 피시방에 모인 동호회원들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들을 즐겼다. 연령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e-스포츠동호회는 매년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만큼 인기 동호회로 자리 잡고 있다.

농구동호회 모임

● 3월 17일, 서울사무소 농구동호회의 1/4분기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퇴근 후 종로구 사직 체육관에 모인 동호회원 10명은 함께 2시간 가량 농구 경기를 즐기고, 저녁 식사 후에 해산했다.

대학생 봉사단 4기 발대식

● 3월 18일, 대학생 봉사단 4기의 발대식이 서울사무소 및 창원, 전주공장에서 진행되었다. 발대식을 통해 기존의 활동을 돌아보고 4기와 함께 진행하게 될 연간 계획에 대한 공지를 진행했다. 3개 지역에서 총 40명이 선발되어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울사무소 부서 단위 배식봉사

● 서울사무소는 매달 부서 단위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1월 22일에는 정보시스템, 2월 26일에는 사업관리 및 전략기획 부서가 배식봉사에 참가했으며, 3월 25일에는 재경이 배식봉사에 참가하여 종로 노인복지관의 독거 노인분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등산동호회 모임

● 3월 23일, 노조창립기념일 휴무를 맞이해 등산 동호회가 특별한 산행을 실시했다. 산행 전날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한 20여 명의 동호회원들은 숙박 후, 23일 새벽에 다 함께 한라산에 올라 정상인 백록담을 밟고 하산하여 함께 서울로 복귀했다.

서 . 울 . 사 . 무 . 소

트랜스미션 시스템 사업부 워크숍 실시

● 3월 24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단양에 있는 대명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지방 사업장의 모든 사업부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사업 성과 및 전망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2016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대학생 봉사단 서울 지역 봉사활동

● 3월 26일, 대학생 봉사단 서울 지역의 첫 봉사활동으로 쿠키 만들기가 진행 되었다. 구로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원들이 함께 만든 쿠키와 또띠아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위한 간식으로 전달되었다. 4월 2일에는 재개발해제구역의 마을 가꾸기 활동으로 진행되는 벽화 봉사가 진행 되었다. 녹번동에 위치한 재개발해제구역에서 서울지역 봉사단원 모두 구슬땀을 흘리며 아름다운 벽화를 그렸다.

서울사무소 미니올림픽

● 3월 28일, 인사와 구매 부서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사무소 미니올림픽이 시작 되었다. 부서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 시작된 미니올림픽은 경기 부서의 일정에 맞추어 오후 5시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스릴 넘치는 사격 종목이 추가되었으며, 최종 3위안에 든 부서에게는 소정의 회식비가 제공된다.

서울사무소 타운 홀 미팅

● 3월 29일, 2016년 3월부터 진행되는 대표이사 타운 홀 미팅이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 타운 홀 미팅에는 각 부서 매니저 25명이 참가하였다. 타운 홀 미팅은 매월 사업장별로 돌아가며 진행되며, 다양한 직급과의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창 . 원 . 공 . 장

세플러코리아 노동조합 제 53년 차 정기 대의원 대회

● 2월 24일, 셰플러코리아 노동조합 창원지부의 제 53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가 창원공장 연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모범 조합원 포상, 대의원 점명, 회순 통과, 의안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 봉사단 창원지역 봉사활동

● 3월 26일, 대학생 봉사단 창원지역 단원들이 경남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창원시 장애인 축구대회의 운영 요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봉사단원들은 축구 경기 심판, 각종 부스 운영 등으로 행사 진행을 함께 도왔다. 오늘 4월 30일에는 마산합포구 소재의 부재산방을 방문하여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농촌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 주 . 공 . 장

일본 강구업체 Amatsuji Steel Ball의 창원공장 방문

● 2월 18일, 일본 강구 업체인 Amatsuji Steel Ball에서 창원 공장을 방문하였다. 요시노리 스기모토 사장과 구매 담당 매니저가 방문한 이번 방문에서 3세대 휠 베어링의 볼 공급업체로써 양사 간에 비즈니스 협의와 함께 공장 견학이 진행되었다.

사원자녀 영어수업 입학식

● 3월 22일, 사원 자녀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업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임직원 자녀 총 18명이 수강신청을 통해 참가하였다. 전주공장은 원어민 강사 섭외, 커리큘럼 변경 및 수준별 학습을 바탕으로 사원 자녀들에게 더 나은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전주지부 창립기념일 행사

● 제27회 노동조합 전주지부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건지산 산행 및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공장 조합원 105명이 참석하였으며, 산행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봉사단 전주지역 봉사활동

● 3월 26일, 총 13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봉사단 전주지역의 첫 봉사활동이 있었다.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대학생 봉사단 전주지역 4기는 센터 아이들과 함께 찰흙과 지점토를 이용한 공예활동을 진행하고, 봄을 맞아 센터 대청소를 시행하였다.

안 . 산 . 공 . 장

기본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실시

● 안산공장은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기본 안전수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 안전수칙은 올해로 3차 개정이 이뤄졌으며, 식장과 현장에 마련된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안내되고 있다. 꾸준한 홍보와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다.

분기별 품질환경안전 교육 실시

● 3월 29일, 2016년 1분기 품질 환경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안산공장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화재 시 지하에서 탈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용 보호구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었다.

연 . 구 . 소

신입사원 연구소 견학

● 2월 24일, 2016년 상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수 일정으로 연구소 견학이 진행되었다. 신입사원들이 앞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졌으면 하는 태도와 바람에 대한 연구소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연구소 설비 투어를 진행하였다. 설비 투어 간에는 전용기개발팀의 전용설비 조립 시연, PMO 교육, 평가그룹의 시험평가 시연 등에 직접 참여해 보기도 하며,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6. 1

직접자재구매
김태우 | 5일
부친회갑

사업관리
김원권 | 7일
모친상

중부물류센터
김준호 | 8일
부친회갑

중부물류센터
이동기 | 15일
부친회갑

회계
이은혜 | 24일
본인결혼

전략기획
김수아 | 30일
부친회갑

2016. 2

산업기계 남부 시판 영업
강한호 | 2일
장모상

중부물류센터
김대운 | 16일
모친상

SCM
김선우 | 21일
본인결혼

회계
신현아 | 26일
모친회갑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서연지 | 27일
본인결혼

2016. 3

중부물류센터
박우빈 | 5일
부친회갑

SCM
송형철 | 19일
본인결혼

일반구매
손형호 | 26일
부친회갑

2016. 4

산업기계 남부
작납 영업
이겨레 | 2일
본인결혼

전주공장

2016. 1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원호 | 25일
자녀출산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성천 | 27일
장인상

2016. 2

품질보증 전주
이재익 | 1일
자녀출산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영규 | 22일
본인결혼

품질보증 전주
신용비 | 25일
장인상

2016. 3

설비보전 전주
이동호 | 2일
부친상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용태 | 3일
부친회갑

2016. 4

휠베어링 세그먼트
김경진 | 2일
본인결혼

창원공장

2016. 1

생산계획 볼베어링 MJ
이창우 | 16일
장인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형상 | 18일
장모회갑

선삭 세그먼트
서화수 | 20일
모친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조규석 | 23일
장모회갑

업무지원 창원 환경안전
원준길 | 23일
장모회갑

품질보증 창원
이범주 | 24일
백부상

업무지원 창원
이강길 | 25일
장모상

2016. 2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조명식 | 11일
조부상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조원형 | 11일
부친상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영빈 | 12일
모친상

업무지원 창원 환경안전
원준길 | 20일
부친회갑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봉주 | 20일
본인결혼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J
박명식 | 21일
자녀출산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정상훈 | 26일
조모상

단조 세그먼트
남경원 | 28일
장모회갑

2016. 3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홍철 | 1일
장인상

설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J
박상내 | 3일
자녀출산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정상훈 | 5일
형제결혼

단조 세그먼트
김태형 | 6일
본인결혼

설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J
김정배 | 6일
차남결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오유찬 | 7일
형제상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정호진 | 14일
숙부상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J
김종인 | 15일
장모회갑

안산공장

2016. 2

엔진부품 세그먼트
유지완 | 3일
부친상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대원 | 5일
모친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종한 | 22일
조부상

엔진부품 세그먼트
조성호 | 23일
조부상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박용수 | 25일
모친상

2016. 3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오세권 | 2일
장인회갑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박용찬 | 4일
장모상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태일 | 6일
부친상

엔진부품 세그먼트
유근상 | 6일
본인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남순학 | 20일
부친상

연구소

2016. 1

제품기술팀
김현용 | 31일
조모상

2016. 2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조지은 | 14일
부친회갑

2016. 3

전용기개발팀
권신복 | 14일
장모회갑

나는 셰플러인 입니다

화려한 스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기보다
그 꿈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
동네 작은 골목길마저 삭막한 풍경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청년의 작은 손길을 모아 무채색의 벽에 희망의 색을 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입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힘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힘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더디지만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한다는 가치를 지켜갑니다.

Together, we move the world
셰플러코리아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LuK INA FAG SCHAEFFLER Tel : 02) 311-3753 · Fax : 0505) 073-2043